

이창진

이창진은 London College of Fashion에서 Menswear를 전공했으며 실용성과 실험 사이의 균형을 탐구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닌 일상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옷, 고유한 패턴과 디테일로 완성되는 웨어러블한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런던 AFFXWRKS 와 SILAS 에서 실무를 쌓으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타겟층의 문화가 제품에 녹아드는 것이 일상에서 지속되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남성용 트라우저

회색 와이드 핏 트라우저, 원단은 흔히 슬랙스라 불리는 포멀한 소재다. 포멀한 슬랙스의 패턴 구조는 그대로 가져오되, 데님 트라우저가 오래 입으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페이딩 (fading) 효과를 메쉬 원단으로 표현함으로써, 포멀웨어와 캐주얼웨어의 경계에 있는 새로운 성격의 옷을 완성했다.

여성용 트라우저

특별한 디테일이나 패턴 없이 만들어진, 지극히 기본적인 트라우저다. 평범한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 트라우저가 연상되는 조끼로 바꾸는 것만큼 큰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

기본 트라우저에서 그나마 가장 복잡한 구조를 지닌 부분은 플라이(fly)와 웨이스트 밴드라고 생각한다. 이 두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트임이 생기는 플라이는 조끼의 센터 벤트 구조로, 웰트로 마감된 뒷주머니는 조끼의 체스트 포켓으로, 웨이스트 벨트는 조끼의 한쪽 앞판에만 결합해, 스카프 또는 타이처럼 연출 가능한 디테일로 전환하였다.

트라우저의 기능적 요소들이 조끼 위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재배치한 작품이다.